

# 디지털 인문학 연구-교육과 정동이론 세미나

주최: "네트워크형 디지털 인문학 교육 모델 연구"팀

주관: UNIST 디지털 인문학 센터 & 동아대 젠더.어펙트 연구소

## 강좌 일정

회차	일시	주제	강의자
1	3/18 (화) 오후 8시	젠더.어펙트 연구: 신체화된 권력과 신체화된 테크놀로지 비판 이론과 그 논점	권명아
2	4/1 (화) 오후 8시	정동이라는 렌즈: 문학비평의 한 사례	김미정
3	4/15 (화) 오후 8시	생명정치와 정동 경제와 문화연구	권두현
4	5/13 (화) 오후 8시	증언의 정동과 탈식민주의 연구	송혜림
5	5/27 (화) 오후 8시	정동과 모빌리티: 이론과 현황	최성희
6	6/3 (화) 오후 8시	페미니즘의 감정의 문화정치와 어펙트 연구 1: 잔인한 낙관과 정동 리얼리즘	박미선
7	6/10 (화) 오후 8시	페미니즘의 감정의 문화정치와 어펙트연구 2: 위태로운 사회와 측면적 행위 주체성	박미선

텍스트에 산재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?

수량적 문학분석의 방법의 하나인 감성 분석은 주로 감정값이 매겨진 감성어휘의 빈도와 분포를 측정하여 서사 내 주인공이 겪는 감정의 흐름을 추적한다. 물론 이 방법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어휘로 표현된 감정만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해석이 제한적이다.

반면 정동이론은 외부에서 신체의 감정을 촉발한 계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 사건의 관계를 정치적, 사회적, 역사적, 물질적, 문화적, 포스트식민지적 등의 측면에서 파악한다. 정성적 해석이 읽기의 주요방법이다.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감정에 관한 두 방법론을 상보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? 본 세미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첫걸음으로 정동연구 이론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하고자 한다. 문의: UNIST 인문학부 이재연 (jlee2791@unist.ac.kr)

DH-정동연구

